

오늘이다, 마지막 밤이.

구나연(미술평론)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자, 우리 모두의 마지막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밤에, 마지막 밤이 도래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면, 뒤늦은 자각에 우리가 느낄 참담한 후회를 떠올린다.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필름과 같이 되감아, 오늘을 마지막 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생각할까. 보이는 것조차 볼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의 참회처럼 두 눈을 찢러 본들, 종말의 도래 앞에서는 허무한 푸념일 따름일 것이다. 우리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가 그러했듯, 어리석은 신탁에 의지해 미래에 대해 다가가려 하면서도, 정작 현재에 뚜렷이 보이는 징후는 외면하려 든다. 여기, 지금, 모습을 드러낸 미래의 윤곽에 등을 돌린 채, 더 윤택하고 더 유용한 미래에만 주사위를 던진다. 그리고 다른 아닌 '인간'이라는 답의 수수께끼를 맞춘 지혜에 도취되어 우리 생의 기원인 자연을 살해하고, 번쩍이는 광기의 화약으로 영토 없는 경계를 무장하면서, 기계의 능력에 붙인 불꽃의 열기를 숨이 막히도록 들이마신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파토스 없는 비극의 결말로 치닫고 있다.

나는 아직 염지혜의 작품 <마지막 밤>을 보지 못한 채, 이 글을 쓴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밤>과 이미 만난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그가 제공한 <마지막 밤>의 이미지와 "맴도는 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영상 작품에 앞서 스틸 컷을 띄엄띄엄 던진 것은 아마도 무빙 이미지의 시간성이 지닌 동적 상태를 잠시 붙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밤>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들이 규정된 서사 없이 주어질 때, 이는 각 이미지 사이에 드리운 깊숙한 행간을 우리의 현재에 내재한 미래의 징후로 채우며 오늘이라는 마지막 밤을 깨우게 된다. 따라서 매체의 특징을 통해 재생되는 선형적 시간을 넘어, 멈추어 있을 때만이 발견될 수 있는 이미지의 지층은 우리의 숙고를 요청하는 강한 능동성을 갖는다. 영상의 동력을 유보하는 대신, 이미지를 자연과 정지의 상태로 제시하려는 이 시도는 염지혜가 회화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직접적인 회화의 형식으로 응결된 도상들이 무수한 복선을 품으며 우리에게 개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밤>의 이미지들은 '이미 시작된 끝'에 관한 각각의 독립적인 서사로 확장된다.

'위기'라는 흔한 단어가 이 세계의 존재 방식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된 지 오래다. 기후와 환경의 위기, 경제의 위기, 식량의 위기, 팬데믹의 위기, 전쟁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로 둘러싸인 오늘 속에서 인간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하다. 인류가 인류 아닌 모든 것에 대해 지닌 고질적인 무신경은 그로 인해 축적된 총체적 위기가 만든 <마지막 밤>이라는 황량한 풍경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염지혜의 작업은 오늘의 세계를 향해 다그치는 사이렌처럼, 과거와 현재에 포화한 위기를 감지한 이미지의 "출현"이다. 이것은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이 파졸리니의 영화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이, "아무런 [위기의] 기미 없이 지나가는 시대"에 이를 감지하는 일이며, "역사

앞에서 재발견되는 "비상사태"와 같은 것이다.¹ 멈출 수 없는 문명의 가속에 휘둘러 절박한 순간의 브레이크를 번번이 놓쳐버린 인간은 기어이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무력함을 깨달을까. 염지혜가 그간의 작업으로 제시해 온 수많은 위험과 그 신호에 대한 언급들은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 박힌 태연한 외면과 무력한 시간에 대한 묵시론이며, 오늘을 통해 짐작 가능한 파국적 미래에 대한 절체절명의 메타포이다.

염지혜의 <마지막 밤> 이미지는 물과 불, 공기와 땅이 교차하는 시공의 끝에서 맞이한, 요란하지도 혹독하지도 않은 종말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맹렬히 파괴해 간 인간이 사그라지는 밤은, 미약하게 꺼져가는 프로메테우스의 고독감을 지니고 있다. 염지혜의 작업에서 불은 양가적 속성이 내재된 자연에 관한 근본적인 어휘가 되는데, <마지막 밤>의 불은 어느 때보다도 어둡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불의 정신분석』은 바슐라르가 제안한 불, 즉 주체이자 객체인 불의 이미지가 지닌 시학의 종언이기도 하다. 『불의 정신분석』에서 불은 "내밀하면서도 또한 보편적"인 것이며,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부여를 분명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다". 불이 지닌 양가성은 염지혜가 <마지막 밤> 이미지와 함께 제공한 "땀도는 말"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불이 지닌 "이미지들의 시적 생산"을 이해하는 것이며, "불이야말로 이미지를 만드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변증법화된 요소"가 된다.² 염지혜에게 불은 인간과 자연, 소멸과 생성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미지는 지성과 파괴라는 문명의 이중성, 삶과 죽음이라는 생의 이중성, 그리고 질료의 근원적 판 혹은 모나드로 소급해 가는 이중성을 포용한다. 하와이의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펠레(Pele)와 같이, 세계의 땅을 형성하는 불화산의 양의성은 바슐라르가 또한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라 불렀던, 인간 지성의 끝없는 갱신의 욕구로 변질되어 양자택일이라는 편중된 상태로 이화된다. 이것은 인간 지성을 뛰어넘어, 서로가 죽고 죽이는 화염,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생명을 양산하고, 멈춤 없는 탄소의 배출로 인한 재앙을 부추겨 결국은 스스로를 자멸의 길, 그 마지막 밤으로 이끌고 만다.

염지혜의 작업은 예견된 미래의 징후를 독해하여 시제를 넘어선 섬뜩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가 미래를 예측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을 직시하며 징후를 포착할 때에 나타나는 미래와 관계한다. 이를 그의 작업이 지닌 예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현재의 징후를 예리하게 감각할 때 발현되는 이미지의 힘일 것이며, 현재라는 명제로 풀어낼 수 있는 지극히 논리적인 귀납일 것이다. 예컨대 그의 2016 년 작 <그들이 온다. 은밀하게 빠르게>(They come, Swiftly, Stealthily)>가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강렬한 반성적 메시지로 다가오고, <사이보그핸드스탠더로서의 코>(CyborgHandstanderus' Nose, 2021)>에서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기술의 객체가 쏟아지는 불의 가운데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¹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가스 냄새를 감지하다』, 이나라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23, 41-43.

² 가스통 바슐라르, 『불의 정신분석』, 김병옥 옮김, 이학사, 2022 참조.

역설은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로 재고(再考)된다. 그러나 <마지막 밤>은 재고가 없다. 마지막 밤이 지나 인간이 사라진 세계. 그것은 인간이 그토록 꿈꾸었던 유토피아의 도래일 수 있겠으나,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허망한 종말의 이후일 뿐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AI의 딥러닝 대상이 되고, 인간과 기계 사이의 기울어진 지능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가운데, 이에 열광하는 자본의 축배가 개발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치장되는 실패한 근대화의 종결 어미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염지혜의 마지막 밤은 현실을 재몽타주하여 감지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미래의 이미지, 오늘에 나타난 마지막의 이미지로 다가와 절실한 성찰을 재촉한다.